

2023년 04월 23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29장 11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301(통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욥기 22장 1~20절(신약p.782)

1. 데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2.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3.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4.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나
5. 네 악이 크지 아니하나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6.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혈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7.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8.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9.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10. 그러므로 울무들이 너를 둘러 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11.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12.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나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13. 그러나 네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14. 뻥뻥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15.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16.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 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17.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18.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19.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20.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 말씀선포 / 엘리바스의 잘못된 태도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그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어주고, 함께 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자신 또한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으로 위로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행하고, 어떠한 말을 해야 하는지를 바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안에서 주님과 같이 참된 위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친구들에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음에도 엘리바스는 욥의 말을 믿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을 죄인으로 규정하면서 그 죄가 끝이 없다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오히려 더욱 맹렬히 공격합니다. 이처럼 지금 엘리바스가 아무리 옳은 말을 했다고 해도 이런 태도로는 상대방에게 결코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1. 거짓에 근거해 조언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라고 역설합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문하시며 너의 경건함 때문이나 네 악이 크지 아니하나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그 원인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이 말은 욥의 고난이 죄의 결과이며 하나님의 형벌임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죄가 크고 끝이 없다고 비난하면서 욥의 죄들을 나열합니다. 본문 6~9절입니다.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혈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엘리바스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도 한 모금 주지 않았고, 고아와 과부를 학대했으며, 권력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고, 지위를 이용해 거들먹거리며 살았다고 욥을 비난하며 말합니다. 욥이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학대했다며 그가 잔인하고 비열한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기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보았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했고, 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욥을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하셨기에 엘리바스가 지적인 욥의 죄들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그는 사실도 아닌데 자기 생각대로 욥을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고집과 아집에 사로잡혀 이처럼 자신이 만든 기준과 논리를 근거로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자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거짓에 근거해 누군가에게 조언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가짜뉴스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확인되지도 않은 정보들로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성도는 거짓에 현혹되어 함부로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오직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4:2)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12:2)라고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조언 또한 오로지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시작하여 비난을 멈추고 서로의 격려자요, 연약함을 돕는 돕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 욥은 계속 그가 받는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며 고난을 받는 것만으로 자신을 죄인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의롭게 살았는데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셔서

보지 못하시기 때문이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러한 욥의 말을 들은 엘리바스는 그를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먼 곳에 계셔서 보지 못하시고 심판도 하지 않으신다는 욥의 말은 악인들의 생각이라고 지적합니다. 본문 12~15절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나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네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뽀얀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엘리바스는 욥이 옛적부터 악을 저지르는 자들의 생각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라고 공격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를 악인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욥의 자기 말을 듣고 스스로 악인으로 인정하길 원했습니다. 그가 볼 때 욥의 고난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언하려 할 때 상대방이 그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우리도 엘리바스처럼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며 상대방을 몰아붙여 굴복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한 사람에게도 온유함으로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26절입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사도바울은 거역하는 자라도 우리가 온유함으로 대할 때 그런 태도를 통해 하나님이 죄인들을 회개시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조언을 따르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몰아가는 태도는 피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조언해야 할 필요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바로잡아 주려는 마음은 좋은 것이지만 그에 합당한 태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조언이 사실과 진리에 근거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도록 신중히 처신해야 합니다.

◎ 가족함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 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과 가정,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 폐 회 / 주기도문